

내일 없는 사람들

“왜 그렇게 울어요?”

날카로운 며느리의 소리다.

“글쎄 말이다. 암만해도 안 그치는구나. 젖이나 좀 물려 보렴.”

지친 소리로 시어머니는 말하고, 달래다 못한 조막만한 어린애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할머닌 귀찮으시믄 젖뭇이래셔. 속상해!’

며느리는 속으로 종알거리며 붙이던 봉투지 뭉치를 밀어 넣고

“기집애두 왜 그렇게 삼하대! 에미가 뭐 자식만 끼구 앉아 있을 팔자나 되는 줄 아니?”

바락 소리를 지르며 잡아 나꾸듯이 어린애를 빼앗아서 안는다. 그 바람에 아직 백날도 채 못된 아이는 놀라서 가슴에 모았던 두 손으로 활개를 치며 찌르는 소리를 한다.

“애 다칠라.”

그래도 시어머니는 나무랄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염려스러운 듯이 얼굴을 흐린다.

“배급날이 모렌데 벨꺼진 붙여 버려야쥬. 그래 아이허구 씨름만

허다간 뭐가 돼요.”

며느리는 울상을 하면서 야윈 가슴을 열어 젖꼭지를 물린다. 겨우 스물두엇 되어 보이는 곱살스러운 애잔한 얼굴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꽤 가스러졌다. 삼십은 가까운 모양이다.

젖이 부족해선지 워낙 아이가 삼해선지 어린애는 좀처럼 그치지 않는데, 찌익하고 대문이 열리더니

“엄마아, 경훈인 옛 먹어——.”

하고 대여섯 살 되는 흙강아지가 된 아이놈이 미거스럽게 콧소리를 하며 들어온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흘깃 보자 더 한층 성미가 일어난다.

“경훈이가 옛 먹으니 어쨌단 말야!”

“흐응 나두 옛——.”

아이는 고개를 외로 꼬고 이마 너머로 어머니를 쳐다본다.

“요녀석, 너까지 날 못살게 구냐?”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옆에 놓인 풀통을 들어 동맹이를 친다. 풀통은 댕돌에서 느른하게 잠이 든 누렁이 등위에 털씩 떨어져, 풀은 개잔등이에 쏟아지고 빈 깡통은 요란하게 땡그랑거리며 굴러내렸다.

할머니는 재빨리 뛰어 내려가서 통을 줍고, 놀라서 깨강깨강하는 개를 붙들어 누르고 등에 엉겨붙은 풀을 긁어 담으며

“애 어린걸 가지구 뭘 그러니?”

하고 역성을 한다. 그제야 어머니의 지나친 야단에 눈만 휘둥그래서 옛 생각도 잊어버리고 섰던 영경이는 못생기게

“이잉——.”

하고 울기 시작한다.

건넌방에서 낮잠이 들었던 세 살 난 아우 본 계집아이가 이 소동에 선잠이 깨어 킁킁거린다.

“그것 봐라. 니가 울어서 영숙이가 깬구나.”

할머니가 손자를 나무라고 건넌방에 들어가 보니, 영숙이는 요 바

다에 형뎡근히 오줌을 싸고 누워 있다.

“에그머니, 이젠 또 무슨 망령이야!”

하는 할머니 소리에

“왜 그래요? 또 오줌 쌌지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 발딱 일어서서 한달음으로 건넌방으로 들어가더니 킁킁거리고 있는 아이 볼기짜를 보기 좋게 냅다 붙였다.

“그래 요년아, 그렇게 뉘일라구 애를 써두 안 누더니 또 싸구 말았지! 에미 잡아먹을 년 같으니…….”

와아하고 아이가 우니 품속의 갓난이가 까르르한다. 마당에 비켜선 큰놈은 여전히 칭얼칭얼 조르고 있고.

“아이구 지긋지긋해!”

젊은 어머니는 성미에 못 이겨 췌근췌근하며 가까이 있는 오줌 싼 계집애에다 분풀이를 한다.

살이 없느니만큼 손때가 맵다. 새파랗게 질린 어린것을 할머니는 얼른 들쳐 업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 버린다.

요즈음은 거의 날마다 나는 소동이였으나, 할머니는 번번이 거북하고 민망스럽고 고까운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지고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어린 것들 단속하는 것이 도가 넘어 자격지심으로

‘사리는 맑은 기집이니까 차마 날 보군 못 그러고, 어린것들한테 양갓음을 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며느리가 꽤 씹하다기보다 자기 신세가 서글펐다. 그래도 영감이 살아 있을 때는 유세도 부려 보았지만, 요즘은 공연히 풀이 죽어 서러운 생각만 든다.

할머니로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아들 내외가 결코 불측한 자식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 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요셋사람으로는 펍 조신하고 암전하고 효성스러운 청년이고, 며느리는 바지런하고 사리 맑고 경우 밝고 알

뜰하고 또 손끝이 야물다.

어른 셋, 아이 셋이라면 많은 식구는 아니나 조석에서 빨래, 푸지, 바느질까지 혼자 맡아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외에 그는 어려운 살림의 보탬으로 봉투를 맡아다 붙였다.

시어머니 뒤도 항상 깨끗하게 거두어 시어머니 부려먹는 것을 떡 먹듯 하는 요즘 신여성과는 다르다.

그러나 요즘 살림이란 것은 살을 깎아내는 반비례로 성미를 기르기가 쉽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본 지 일년 후부터 손자 말 노릇하기 시작하여, 이날까지 등 비는 날이 없었다. 그러므로

“할머닌 애기만 봐 주시믄 되시니깐.”

하고 일이라기보다 놀이라는 듯이 하는 소리들이 좀 불만스럽다. 아이 보기가 티도 안 나면서 어지간히 골 빠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일 안 봐 줘봐. 제 아무리 날구 땀땀자 싸 몽개게 되지!’ 자기도 가족으로서 불가결한 존재의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자기가 물위에 기름 돌 듯 곁으로만 도는 것 같았다. 외로웠다.

영경 할머니는 집에서 거북한 일이 있으면 어린애를 업고 종로 뒷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내고 있는 친정 형님에게 하소연을 하러 간다.

서울이라는 조화를 무시한 도시 중에서도, 그 정도가 극심한 종로——철근 콘크리트의 고층 건물이 근대 문화를 자랑하듯 어깨를 뻗치고 서 있나 하면, 수도 서울의 심장지 변화가 종로 큰 길가에 쓰러져 가는 옛 점포가 어엿하게 전을 벌이고 있다. 간판만 보아도 가지각색으로, 영자로 가로 쓴 초현대적인 것이 있나 하면, ×× 상전(床塵)이라고 쓴 회고 취미(懷古趣味)도 있다.

더구나 한 걸음만 그 뒤로 발을 옮기고 보면 소위 서울의 암흑가라

고 불리는 환락장(歡樂場)에 섞여 납작한 구식 시정(舊式市井)이 너무나 낡고 초라는 하나마 옛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낡은 시정이 현대하고 등지고 있나 하면 대단한 그릇이고, 수도 서울의 굵은 한 혈맥으로 현대 도시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경 할머니의 형, 성참봉 부인이 이 뒷골목에 구멍가게를 내게 된 것은 해방 후부터다.

그 고장에서 여관을 내고 있었던 먼 척분 되는 사람이 해방 후 여관업을 그만두고 다른 장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바깥채를 성참봉 부인에게 빌려 주어 거기다가 조그만 가게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길을 걸으면 발부리에 채이도록 늘어만 가는 서울 거리의 구멍가게——그러나 장소가 장소인 만큼 두 식구 호구는 되었다.

영경 할머니가 불만과 심란한 마음을 잔뜩 안고 형의 집 가게에 들어서니, 늘 가게에 앉아 있는 참봉 부인은 출타중인지 보이지 않고, 성 참봉이 방에 앉아 있다가 늙은 처제를 보자 얼른 장지문을 닫고 에헬하고 기침을 하며

“여보 마누라, 손님 오신 모양이요.”

한다.

“누구세요?”

하며 삼간방을 미닫이로 가른 윗방에서, 참봉 부인의 소리가 났다.

“나요, 영경 할미요. 언니 무얼 허슈?”

하며 영경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니, 돋보기를 쓰고 영감 마고자를 짓고 있던 참봉 부인이 이마 위에다 돋보기를 올리고 눈을 치뜨며

“난 또 누구라구. 오늘은 어찌 경마재비가 없니?”

하고 웃는다. 경마재비라는 것은 할머니가 일상 손녀를 업고 손자를 앞세우고 다니기 때문에 참봉 부인이 지은 영경이의 별명이다.

슬기로운 형과 달라 결말 하나 쓸 줄 모르는 아우는 그 말에는 대꾸도 않고

“늙은이가 무슨 바느질이야!”

“허 그애가. 늙은 것두 설은데 바누질두 못 하래니?”
하고 허허 웃고

“그래 어린건 젓 잘 먹니?”

“웬걸.”

“아니 백날두 안 됐는데 그거 큰일이구나.”

영경 할머니는 씹어 배알듯이

“에미 성미가 그따위니 젓인들 붙을 수 있답디까?”

“자식들허구 어디, 얻어먹는 게 있어야지.”

형은 오히려 조카 며느리를 동정하는 빛이다.

“그렇게 잔뜩 동여매구만 있지 말구 좀 풀어놓으렴.”

하고 성 참봉 부인이 포대기 띠를 끄르려 하는데

“담배 없어요?”

하는 젊은 남자의 소리가 난다. 누가 온 모양이다.

그러자

“여보.”

하고 성 참봉의 담 걸린 소리가 들렸다.

참봉 부인은 바늘을 머리쪽에 꽂고

“네.”

하고 일어선다.

마누라가 가용이나 바느질을 할 때만 가게에 앉아 있는 성 참봉은 긴 장죽을 물고 푹 꺼진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며 골목을 흘려보다가는 가끔 버선 바닥을 쓰다듬는 이외에는 할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데, 장사를 시작한 지 그러저럭 삼 년 가까이 되건만 여지껏 파는 물건의 값을 모른다.

검버섯이 꺼끗꺼끗 난 허여멀건 짐작은 얼굴은 손님이 가게 안에 들어서도 무표정한 채로 있다.

“이거 얼마예요?”

물건을 가리키며 값을 물으면 물고 있던 장죽을 혀끝으로 밀어 뱉

고

“여보.”

하고 천천히 마누라를 부른다.

할머니가 김을 굽다가라도 재빨리 나와 보지 않으면 그 손님은 이내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곧잘 온다. 가격이 뻔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사 가지고 가고, 값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성 참봉은 장안 갑부 성 판서의 아들로 태어나 장안의 기생들은 모조리 내 딸의 꽃으로 알던 일대의 탕아였다. 지금 낙락하여 뒷골목에서 손바닥만한 가게를 지키고는 있으나 허여멀건 신수에는 여전히 귀태가 흘렀다.

충천하는 권세와 뛰어난 미모로 요란한 백화 속에서 거드러져 놀던 호랑나비 한 마리……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니 청춘도 천량도 매양이 아니었던 것이다.

참봉 부인은 스물한 살에 첫 시את을 보았을 때 노심으로 무섭게 살이 빠졌었다. 그러나 그 후 남편의 방탕이 심해 갈수록 몸이 나기 시작하여 남들은 청승살이라 하였지만, 이내 뚱뚱한 몸집이다.

남편이라고 받는 것은 분노와 원한과 고통뿐이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하여 어머니로서의 행복조차 맛보지 못했지만, 그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아내 앞으로 돌아왔을 때 거역할 힘이 없었다.

조강지처의 서글픈 긍지 ——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부부도(夫婦道)를 지킬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아 그러나 남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내와 동고(同苦)는 하되 동락(同樂)은 아니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가게에 나갔던 참봉 부인은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길에 연시 대여섯 개를 가지고 와서

“잘 물렀다. 먹어 봐라.”

하고 권한다. 아우는

“올 때마다 뭐.”

하면서도 손은 이내 윤이 짜르르 흐르는 발간 감으로 뻗어졌다.

어쩌다 친정붙이가 찾아올 때마다 아무리 대접을 하고 싶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처분만 바라는 자기에 비해 얼마나 자유로운 형의 처지라!

그러나 영경 할머니는 형과 막상 마주보면 하소연하려고 마음먹고 왔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그럽고 시원스러운 형을 보면 자기가 더욱 오종종하고 꾀죄죄한 늙은이로 생각이 들어 기가 질렸다.

가게에서 또 인기척이 난다. 이윽고 명랑하고 높은 여자 음성이 들려왔다.

성참봉은 이번엔 마누라를 부르지 않고 담이 걸린 답답한 목소리로 무어라고 말하고 쿨룩거리며 웃기까지 한다.

참봉 부인은 혼잣말로

“응 라주마마가 왔구먼.”

하고

“어서 들오슈.”

앉은 채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 동안 평안들 허슈?”

젊은 여자같이 맑고 밝은 음성으로 떠들어대며 오동통하게 살이 쥘 복스러운 자그마한 노파가 들어온다. 참봉 부인이 역시 앉은 채

“그래 별고 없었수?”

하고 인사를 하니

“웬 차에 사람두 어찌 그렇게두 많은지, 옷이 똥수세미가 됐네.”

하고 탄소리를 한다. 참봉 부인이 웃으며

“그것 참 좋은 것 해 입으셨소그려.”

하고 노파의 두루마기를 가리키니 노파는 소매 끝을 잡고 팔을 벌려 보이며

“이것 말이유? 안주댁 기숙 할머니가 전에 영감 입으시던 거라구

준 건데 좁은 좀 집었지만 사려면 이만 환짜린 된대.”

“그거야 어느 양반이 입으시던 거라구 나쁘겠수.”

하고 참봉 부인.

깃동정이 대문짝만하고 회장은 손등을 덮고 길이는 치마 길이와 거의 같았으나 노파는

“영감이 워낙 체소허셔서 내게 꼭 맞는구려.”

하고 자기 몸을 내리훑어본다.

“안주댁은 무고들 허슈? 하두 간 제가 오래라, 통 소식을 모르지만.”

“아아 그 댁이야 사시춘풍이지. 요새 둘째 아들 색시감 선보려 다니느라구 야단이지.”

“둘째라니? 기열이 말유?”

“기열이는 셋째지. 그애는 미국을 간다나. 그런데 미국을 가려면 여비만 백만 환이래.”

“아우 끄찍해라.”

“그럼, 엄청나지.”

라주마마는 자기 돈이나 대는 것처럼 신이 난다.

한바탕 떠들어대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감만 먹고 있던 영경 할머니를 보고

“아우님이셨지?”

하고 참봉 부인을 쳐다본다. 그제야 영경 할머니는

“네,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하며 인사를 한다.

친정붙이라는 것은 수사돈 떨어지가 언제나 좀 거북하다. 공연히 가벼운 반감과 위압을 느낀다. 더구나 영경 할머니는 이 재재거리는 형의 서 시숙모가 싫다. 안면이 있건만 먼저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손녀 따님이세요?”

“네.”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애기 아버진 뭘 하시죠?”

“회사에 다녀요.”

“월급 생활이시구면. 요새 월급만 가지구 살기 참 어렵지.”

라주마마는 혼잣말 같이 중얼거리고, 영경 할머니의 주제를 훑어 본다. 영경 할머니는 그 꼴이 밍살맞다. 모욕을 느낀 것이다.

‘흥 남의 첩년 노릇 해 놓구 건방지게 남을 깔보긴——.’

슬며시 꼴이 났다. 그러나 속으로는 라주마마를 만날 줄 알았으면 새 명주 저고리를 입고 올 걸, 하고 후회가 되었다.

미국 가는 여비가 백만 환이나 든다는등, 이만 환짜리 두루마기라는등, 다 어려운 자기보고 들어 보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영경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항상 라주마마를 자기보다 한층 밑길을 가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늘어놓는 수다가 모두 아니꼽다. 한자리에 앉아도 썩이지 않으니 거북하다. 그는

“영숙아, 가자!”

하며 어린것을 들쳐 업었다. 형은 붙들어도 듣지 않으니깐 아무 말 없이 한쪽으로 축 늘어뜨린 포대기 자락을 고쳐 업혀 준다.

영경 할머니는 뿌르르 나와 집으로 돌아가며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아니꼬운 년 같으니!”

라주마마는 성 참봉의 끝의 삼촌이 라주골에 살 때 얻은 소실이다. 귀염성스러운 미인으로 소시에는 세력이 당당했으나 영감의 사후 물려받은 자그만 집은 대개 사글세를 놓은 아랫방에게 맡겨 놓고, 소생도 없는 외로운 몸을 이집 저집으로 떠돌아다녔다.

바지런하고 재고 손끝이 야물어, 문중에서 아쉬운 일이 있으면 으레 라주마마를 불렀다. 라주마마는 그것이 자랑이다.

밴덕스럽고 수다스러운 것이 흥이나 단순하고 순진하여 추켜 주면 공치사를 해 가며 무리한 일까지 하려 들었다.

라주마마는 어느 집 일이라도 모르는 일이 없다. 그는 이것도 또 자랑이다.

어느 집에 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일주일 내로 그 뉴스는 알 만한 집에는 남김없이 퍼져 버린다. 따라서 라주마마는 문중의 요주의 인물(要注意人物)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참견 안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조금만 눈치가 다르면 피침한 일에도 노염을 탄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 우스워 곧잘 놀려먹는다.

안주댁은 성 참봉의 둘째 삼촌 라주마마의 둘째 시숙의 집이다. 문중에서 제일 형세가 나은 집안인데, 라주마마는 이 집 출입이 잦다.

장난꾸러기 종손들은 심심하면 이 서 종조모를 놀려먹는다.

“마마 할머니, 왜 파리가 쇠잔등에 앉는 줄 아세요?”

“.....”

라주마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대꾸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미씨두 그걸 몰루? 아 그렇지 았우? 소가 파리 잔등에 앉을 수 없으니깐 파리가 쇠잔등에 앉는 게지.”

하고 실없이 웃는다. 그제야 라주마마는 놀림을 받은 줄 알고 뿔뿔해진다.

안주댁에서 새며느리를 봤을 때 오는 사람마다 생면을 시켰는데, 라주마마가 왔을 때는 시부모가 무심히 절을 안 시킨 일이 있었다. 아무리 서(庶)라도 그 집 밥을 먹은 지 오십 년——항렬도 두 대나 아래라, 라주마마는 이 소위가 펍 섭섭했다. 항상 오면 묵어 가는 노인이 오자마자

“난 가요.”

하고 뿔뿔해 버린 이유를 나중에야 짐작한 가인들은 박장 대소를 했던 것이다.

상냥하고 공손한 안주댁 며느리는 그 후부터는 라주마마를 볼 적마다 시키지 않건만 꼭꼭 절을 한다. 풀리기도 잘하는 라주마마는 그

것이 고맙고 기뻐다.

“새벽 버선 길 것 있으면 내놓게.”

하고 자청하여 버선 뒤는 다 대다시피 하였다.

참봉 부인하고는 동갑인데다가 소시부터 정이 들어, 한 달에 두어 번씩은 꼭 찾아온다. 그러므로 참봉 부인은 구멍가게를 낸 후로는 이 잘사는 사촌 시동생의 집예를 갈 새는 없으나, 그녀의 입으로 그 집 안일을 환하게 알았다. 라주마마는 올 때마다, 이런 것도 얻고 저런 것도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간다. 안주댁 같은 부호가에서 자기를 그 처럼 소중히 안다는 것이 떳떳했던 것이다.

영경 할머니가 가 버린 후 참봉 부인이

“두루마기 벗구 앉구료.”

하니까

“아니 오늘은 곧 가야 한다우. 그런데 영감 마고자요?”

하며 쪼그려 앉은 채 바느질 거리를 뒤적거린다. 이윽고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 원동 하나가 뒤집혔네.”

“뭐요?”

참봉 부인이 깜짝 놀라 들어 보니 라주마마 말대로 마고자 동 하나가 뒤집혀 달려 있는 것이다. 라주마마는 혀를 척척 차며

“그 숨씨도 늙었구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도무지 귀에서 소리가 나서 탈이야. 모두들 가며, 너두 가자구 재촉을 하는 가 봐.”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일어선다.

귀에서 소리가 나면 동갑네가 죽었다는 알림장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녀였다.

라주마마가 간 후 참봉 부인은 어쩐지 심란해서 가게에서 영감의

“여보! 여보 마누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다른 때같이 뛰어나가기가 싫었다.

원체 흰칠하고 씩씩하고 솜씨가 좋아, 소박데기로 돌던 소시부터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일도, 점잖지 않게 노역을 탄 일도, 청승스럽게 신세 타령을 한 일도 없이 굳세게 살아온 그녀였으나, 마고자동을 한쪽 뒤집어 붙인 것을 그것도 남에게 일깨워져 비로소 안 일이 껍이나 심란했다.

솜씨 좋고 칠칠한 성 관서 며느리로, 시아버지 조복을 꾸민 그녀—— 이틀 동안에 흉배(胸背)의 쌍학을 그린 듯이 수놓은 그녀—— 그러던 것이 변변치 않은 담배 한 갑을 팔래도 ‘진짜’니 ‘가짜’니 실랑이하는 꼴을 보아야 하고 십 환짜리 성냥 한 갑을 팔아도 고맙다고 치사를 하여야 하는 지금이 서글펐다.

옷감의 안팎을 분별 못 하도록 늙은 눈을 찌푸리고 바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심란했다.

참봉 부인은 눈시울이 뜨거웠다.

뒷골목에는 어둠이 큰길보다 빨리 찾아온다.

안집 식모가 저녁을 지어 놓고 주인집 아이들을 부르러 나가며 “할머니 킁킁한 방에서 뭘 허세요? 저녁두 안 지으시구.” 하고 소리를 친다.

참봉 부인은 눈물을 씻고 일어섰다.

칠십 년을 기계같이 가볍게 놀리던 일신이 오늘따라 힘에 겨운 짐 같이 천근 같았다.

(1949. 9.)